

Korea Press Clipping

Client: Tourism British Columbia

Publication: Esquire

Value: CAD\$10,000

Date: January, 2010

Circulation: 70,000

COPY FOR: TBC, Tourism Vancouver, Tourism Victoria, Tourism Vancouver Island

If You Travel to Vancouver

TRAVEL

밴쿠버에 가신다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김연아를 비롯한 한국 대표팀 응원 일정과 밴쿠버 관광 계획은 세웠는지? 밴쿠버에 간다면 꼭 밴쿠버 아일랜드에도 가보기를 권한다. 정말 멋진 곳이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2010년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동계올림픽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1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캐나다 원주민 이누이트족의 전통 예술을 포함한 '2010 밴쿠버 올림픽 예술 축제'가 펼쳐진다. 밴쿠버 국제공항과 다운타운을 26분 만에 연결하는 모노레일 '캐나다 라인'이 완공돼 저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방상경기연맹은 밴쿠버 올림픽에 역대 최대 인원을 출전시킨다고 발표했다. 명절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없는 김연아 팬클럽 소속 후배는 설 연휴에 휴가를 더해 밴쿠버에 다녀오겠다고 기업을 토하고 있다...

내 후배처럼, 이참에 밴쿠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꼭 가봐야 할 곳을 알려주고자 한다. 자칫하면 경기장과 호텔만 왔다 갔다 하거나 기껏해야 좁은 스트리트에서 어슬렁거리게 될지 모른다. 아, 화려한 쇼핑 타운이자 근사한 레스토랑과 비가 몰려 있는 좁은 스트리트가 별볼

요?"—할 수도 있다. 여행 계획을 미리 준비한다면 캐나다 관광청이나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 관광청 홈페이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살펴보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한국사무소에 들르거나 전화 문의를 하는 것도 좋다.

내가 선호하는 두 번째 관광 활동은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것이다. 밴쿠버에는 트롤리라고 부르는 관광버스가 있다. 레드와 블루 루프의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겹치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둘



다, 시간이 별로 없다면 레드 루프를 타보기를 권한다. 어떤 정류장에서 내리든 원하는 만큼 주변을 둘러보고 15~20분마다 오는 다음 트롤리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관광용 교통수단으로 또 하나 추천할 것은 앞뒤 대형형의 작은 수상 버스다. 당신 또한 나처럼 필경 다운타운 쪽에서 주로 움직일 테니 내이션 플라자 또



일없다는 게 아니다. 어렵사리 보물섬에 갔다가 달항 금계 하나 캐내고 흥얼거리며 돌아오면 좀 아깝다는 얘기가. 그 아래, 또는 그 옆에 금계가 하나 더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나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처음 간 도시를 둘러보기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인포메이션 센터를 방문하곤 한다. 펜클럽은 클럽을 끌어볼 수도 있고 아예 개별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문의—"내게 다섯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밴쿠버를 느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까



다. 내가 갔을 때는 여름이었지만 올림픽 기간에는 틀림없이 눈이 풍성하게 쌓여 있을 것이다. 그라우스 산에는 두 마리 그리즐라 곰도 여유롭게 살고 있다.

캐펠라노 서스펜션 브리지도 가볼 만하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솟아 있는 서부 해안의 우림 속에 70미터 높이의 좁은 현수교에서 협곡을 내려다보는 아찔한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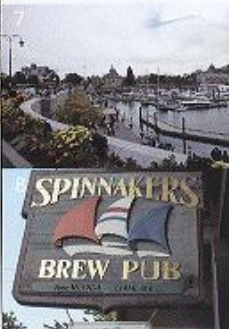
이제 현유를 시작 5대째 토요픽어시어



미도 좋지만, 케펠라노 공원 자체가 캐나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친환경 교육장이기 때문이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키 큰 나무들 사이에 엮어놓은 공중 산책로와 트리톱 어드벤처를 즐기고, 에코 투어까지 참가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성숙해지지 않을까 싶다.

밴쿠버의 자유 여행 숙소로는 코스트 플라자 호텔을 추천한다. 널찍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잉글리시 베이 비치—트롤리 정류장도 있다—에서 가깝고 건물 자체가 높은 랜드마크라서 도심 어디에서든 걸어서 찾아오기 쉽다. 친절한 한국인 직원도 근무하고 있으며, 그녀에게 물어보면 맛있는 한식당 장모집의 위치를 알려줄 것이다. 지갑에 여유가 있고 밴쿠버의 트렌디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궁금하다면 3) **참바**에 가보라. 세련된 테레레이션에 매혹되는 벨기에 퀴진으로, BC 플레이스 근처에 있다.

이제 밴쿠버를 벗어나볼까? 잠재적인 밴쿠버 여행객에게 이르노니, 밴쿠버 섬—밴쿠버 맞은편의 커다란 섬—에 들를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짜기를 바란다. 하나를 꼽는다면 빅토리아다. BC의 주도(州都)는 밴쿠버가 아니라 밴쿠버 섬 남쪽의 빅토리아다. 도시 자체가 아름답고 휴양지 같은 성격이 짙으며 고풍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다. 밴쿠버에서 빅토리아까지는 4) **수상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섬 북쪽의 나나이모에서 BC 페리를 타고 섬을 떠나는 코스가 더욱 재미있다. 빅토리아에서는 뭍 하나, 일단 이너허버에서 고래 구경에 나서야지. 방수·방풍 및 구명복의 역할도 하는 울인원을 덧입고 5) **쾌속정**에 올라 조지아 해협의 다도해를 훑으면 6) **범고래**를 만날 수 있다. 경험자의 충고를 곁들이자면, 쌍안경을 가져가라. 고래는



저녁이 되면 8) **스피너커스 게스트로 브루펍**에서 맛있는 맥주들을 시음해보라.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브루펍으로서 여러 가지 맥주와 에일, 라거를 직접 담근다. 음식도 맛있다. 가정집 같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다. 유기농, 나아가 귀농 사업에 관심이 많다면 빅토리아 북쪽의 시사이더 농장에도 가보라. 그리 크지 않은 사과밭을 가꿔 시이더—일종의 스페셜티 사과 와인—를 제조하는 젊은 부부는 30대에 은퇴해서 이 농장을 차렸다고 한다. 빅토리아에서 나나이모까지 올라가는 길에 다음 두 곳만큼은 꼭 들르는 게 좋다. 한적하고 아름다운 작은 포구인 9) **코워천베이**와 온통 벽화로 가득한 **슈메이너스**.

캐나다 서남부의 BC주는 어디를 바라보든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온다. 이런 데서 살면 절로 친환경적인 삶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BC 여행 중에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동차 번호판마다 'The Best Place on Earth' 또는 'Beautiful British Columbia'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닌가. BC 사람들의 자부심이 잘 느껴지는 대목이다. [E]

글/유정석 사진/Rick Graham, 유정석



FURTHER INFORMATION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관광청: HelloBC.co.kr 캐나다 관광청: kr.canada.travel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vancouver2010.com (밴쿠버) 챔바: chamber.com (밴쿠버) 코스트 플라자 호텔: coasthotels.com (밴쿠버) 트롤리: vancouverrolley.com (빅토리아) 스피너커스: spinnakers.com (빅토리아) 시사이더 농장: seacoder.ca